

선한 싸움을 싸움

7/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1-7, 18-19 (3-4)

1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빛나감으로써 헛된 이야기에 빠져

7 율법 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단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8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

딤후 4:7-8 (7)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사도의 명령을 받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디모데전서 1 장 18 절은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한다. ... 이 명령은 긍정적인 방면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고, 부정적인 방면으로는 다른 가르침들에 관한 것이다. 다른 가르침들로 인하여 교회는 이미 하락했고 믿음에서 벗어났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우라고,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다(딤후 6:12).

‘예언에 따라’(딤후 1:18)라는 말은 예언의 범위와 부촉과 확증 안에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범위와 부촉과 확증 안에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했다.(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3 권, 44 과, 51-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1 장 4 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가정의 법’을 의미하며, 분배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 헬라어 단어의 뒷부분인 ‘법’은 요한복음 10 장 9 절에서 사용된 ‘풀밭’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으며, 양 떼에게 풀을 음식으로 분배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단어는 가정 관리, 가정 행정, 가정 사무를 가리키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는

행정(분배)을 위한 안내, 계획, 혹은 경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가정 경영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경영 즉 그분의 가정 행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자신을 표현할 집을 얻으시는 것인데, 이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딤후 3:15)이다. 사도의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중심을 두었다(골 1:25, 고전 9:17). 그러나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경륜에서 빛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원수가 이용한 것이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들은 이러한 신성한 경륜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1 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가르침들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지만(딤후 1:4), 다른 가르침들은 율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율법을 중심 삼고 있다(1:7-10).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 장에서 다른 것처럼 믿음은 율법과 대립된다. ... 율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율법을 중심 삼는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만이 건강한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고(딤후 1:16),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이다(1:11).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다면, 그는 믿음에 있어서 깊은 바다에서 파선한 것이다(1:19).

디모데전서 1 장 4 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문제, 즉 믿음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되는 문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천연적인 영역이나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창조물의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갈 3:23-26).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표현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넣어져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분의 온 존재에 참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즉 그분의 안배이며, 이 계획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믿음 안에서 수행된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1-1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7/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딤후 1:11-18 (18)

11 이 건강한 가르침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13 전에 나는 모독하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첫 번째 투옥 기간 동안 교회들은 시험받았다. 이 시험을 통해 교회의 하락과 타락이 이미 시작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타락은 전적으로 다른 가르침들, 곧 ‘그’ 사역과 다른 가르침들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이유이다(딤후 1:18).

역대로 교회의 하락과 타락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사역에서 벗어난 다른 가르침들이었다. 사도행전 2 장 42 절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 교회생활의 시작에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계속 머물렀음을 본다. 이러한 가르침이 ‘그’ 사역이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였다.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었는데, 그것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시어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성경에는 많은 것에 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의 초점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어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신약 계시의 핵심적인 초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19-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말씀을 접촉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주입을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하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가 수 세기 동안 상실되었다.

한 면에서 디모데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들에 맞서 싸워야 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사도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야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원한다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조직 신학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

더욱이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관한 것이다. ... 이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즉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표현이자 나타남을 위한 것이다.

7/24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편 6:12-21 (12, 19)

- 12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 13 만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서, 흠 없고 꾸지람 들을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 15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 16 오직 그분만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17 그대는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거만한 생각을 갖지 말며,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 18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풍성해지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 19 그리하여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화인 좋은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십시오.
- 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지키며,

속되고 헛된 말과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반론을 피하십시오.
21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을 주장하다가, 믿음에 있어서 표적을 놓쳤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딤편 6:12 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6:12 하)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이란 신성한 생명의 시간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이 신성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반복하여 강조된다(딤편 1:16, 6:19, 딤편 후 1:1, 10, 딤편 1:2, 3:7). 디모데전서에서 보듯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에서 보듯이 교회 하락의 추세에 맞서기 위하여, 디도서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생명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0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71, 2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의 타고난 생명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객관적으로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믿음을 위해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이 일어나 다른 것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하락의 씨가 되었다. ... 특히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교회생활 안으로 기어들어 온 어떤 주의들, 곧 유대교와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등을 본다.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 때문에 의견 대립과 하락이 발생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에게 다른 가르침들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했다.

역대로 교회는 그러한 가르침들로 중독되고 부패되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르침들은 주님의 회복에도 손상을 줄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다른 가르침들이 교묘하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퍼져 나가 손상을 일으킨 것을 보았다. 이러한 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인도하는 이들이 다른 가르침들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공과를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다른 가르침들도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엄중히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시작하여 오늘날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참된 사도들은 같은 것, 심지어 한 가지 것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20-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는 이 생명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주로 장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현재 생활을 위한 생명이어야 한다. 첫 번째 출생인 육신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생명 곧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참되게 인간적이어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하지만 타고난 생명 안에서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이 생명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우리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 이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이제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을 살고, 온전히 이 생명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수의 간교함은 믿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계속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믿는 이들인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상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다.

이단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근본적인 가르침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서 떨어지도록 원수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성경적이고 근본적이며 선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가르침들과 성격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결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은 믿는 이들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서 떨어지게 한다.

믿는 이들에 관한 신약의 모든 항목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가르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믿는 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인 가르침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에 의해 간교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0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71, 207-2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3 권, 44 과

7/25 목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1-12 (1, 10)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 만나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5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11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12 이런 이유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 내가 맡긴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요일 5:11

11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바울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 안에 결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창조되지 않은,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격려받고 그러한 상황에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썼다. 이 서신은 젊은 동역자를 격려하고 강화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타락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온몸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따라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생명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이 바울 안에 내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온 로마 제국도 그를 다룰 때 어찌할 수 없었다. 바울은 생명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화되었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2-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1 장 1 절에서 언급된 생명은 예방접종의 여덟 가지 기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순수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신성한 은사, 강한 영, 영원한 은혜, 썩지 않을 요소, 건강한 말씀, 내주하시는 영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 생명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면 순수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신성한 예방접종이 공급해 주는 다른모든 것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으며(딤후 1:16),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받은 신성한 은혜의 주요 요소이다(롬 5:17,21).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으며(행 2:24) 죽음을 삼킬 것이다(고후 5:4). 이와 같은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딤후 1:1). 이 생명과 생명의 결과인 썩지 않을 것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밝혀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은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요소이며 심지어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썩지 않을 것은 생명이 우리의 몸을 적신 결과이다(롬 8:11).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은 하락으로 말미암아 교회들 가운데에 들어온 죽음과 부패에 맞설 수 있다.

디모데후서 1 장 12 절에서 바울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라고 말한다. 사도가 믿은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이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체현이다.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강력하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충분히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유업으로 받도록 보존할 수 있다.

교회가 하락할 때 죽음과 부패와 혼란에 대항하려면, 디모데후서 1 장에서 기초가 되는 영원한 생명(1:1, 10)과 2 장에서 강조되는 신성한 진리(2:15, 18, 25)와 3 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3:14-17)이 모두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삼킬 뿐 아니라 생명을 공급한다. 신성한 진리는 썩어 없어질 것의 공허를 모든 신성한 풍성의 실재로 대체한다. 성경은 혼란을 없앨 뿐 아니라 신성한

빛과 계시를 준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책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4, 9-10 쪽, 메시지 6, 53 쪽)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요일 5:20).(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 38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6-7

7/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0:3-5

3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5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마 16:21-28

21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

22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익을 위해 믿는 이들은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 장 7 절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라고 말한다. 디모데전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체험해야 한다.(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3 권, 44 과, 5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귀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며, 사람의 사상들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 ... 우리는 기도하는 강한 전사가 되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일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기고 오는 시대에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1 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영적 전쟁, 17 장, 252-253 쪽)

요한일서 1 장 6 절에서 요한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어둠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탄의 악한 일의 본성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신성한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단지 이 빛 안에 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빛 안에서 살고 행동하며 일을 수행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 신성한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요일 1:5).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고 처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신성한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신성한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다양한 모든 진리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진리들은 실재들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빛이 없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다고 느낀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체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싶다. 신성한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곧 실재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시며, 신성한 생명 또한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 빛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잇따라 실재를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된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실재가 되지 않는다. ...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실재도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감각 대신 우리에게서는 공허하고 헛되다는 느낌만 남는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교통 안에 있다. 이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안에 있다. 그리고 빛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와 몸과 몸의 지체들이 모두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한 장로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해 보자. 비록 그 장로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말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녀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그녀의 예민함 때문이었다. 그 장로는 모든 자매들이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했는지 모른다. ... 그녀의 마음이 상하자 ‘스위치’는 꺼졌고 즉시 그녀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교회생활을 누리는 대신에 교회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실재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교회의 터도 관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교회가 도대체 뭘까? 또 교회의 터는 뭘까? 나는 이제 교회의 터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결국 자신의 체험에 따라 그리스도도 그 영도 신성한 생명도 더 이상 실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이 상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자매가 회개한다고 해 보자. 어떤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즉시 ‘스위치’가 켜지고 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한다. 그럴 때 이 자매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는 체험을 하게 되고, 신성한 것들이 다시 한번 실재가 된다.(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80-8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7;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7-
8, 10

7/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딤후 4:7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일 1:5-7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2:21

21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며, 또 진리에서 나온 것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일 4:1, 6

1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신언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진리는 삼일 하나님이다. ... 진리는 또한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신성하고 영적인 것들의 실재를 계시할 뿐 아니라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실재이다(요 17:17).

말씀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진리의 네 번째 방면인 말씀이 사실상 진리의 처음 세 방면인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대한 설명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실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과 신성한 말씀이다.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0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모든 일꾼은 반드시 진리의 절대성을 지켜야 한다. ... 많은 형제자매들이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과 일들과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는 많은 규례와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례와 계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전파하고 알려야 한다. 한편으로, 실천하지 않고 오직 말뿐인 이들을 떠올릴 때 우리의 속이 불편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해 낼 수 없다면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진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부족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라는 것에 담긴 의미이다. 우리는 말할 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초월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높은 요구 조건이다. 우리는 반드시 동일한 일들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관련될 때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적용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진리는 언제나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말하면 누가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단지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나는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절대성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 우리는 단지 누군가가 우리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진리의 절대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52 권, 주님의 사역자의 성격, 10 장, 215-218 쪽)

하나님의 일을 돌보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적인 공과는 바로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것이다. 성경 안의 어떤 진리도 사람의 상태와 뒤엎혀서는 안된다. 오늘날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진리를 자신의 상태와 뒤엎히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자기 자신의 상태와 뒤엎히게 할때,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체험이 어떤 진리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요건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다. 다윗은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했다(시 12:2).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없는 존재로 여겼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며, 어떤 면에서도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다. 진리는 절대적이므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제쳐 두어야 한다.(위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하), 개정판, 50 장, 67-68 쪽)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항목들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해 내야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의 참된 믿는 이들 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주님의 회복을 돌보며 우리의 증거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의 가르침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딤후 3:15, 6:12, 딤후 4:7).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년, 2 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반대에 대응하며 주님의 회복을 위해 싸움, 3 장, 63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일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11, 17, 32, 39-40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7/28 주일

아침의 누림

딤후 4:1-6, 16-18, 22

1 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

3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4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16 내가 처음 번론할 때에, 나를 지지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허물로 계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복음이 나를 통하여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어, 모든 이방인이 듣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광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885 (英) 단독으로 대항 말고 (中:637)

1 단독으로 대항 말고 몸 안에서 싸우라
머리와 몸 연합하여 보좌에서 싸우라

(후렴)

몸 안에서 전쟁하라 머리 공로 인하여
몸과 함께 전쟁할 때 결코 승리하리라.

2 하나님의 전투장비 몸을 위한 것이니
몸 안에서 싸울 때에 너도 함께 승리해

3 주님 위에 세운 교회 음부가 못 이기니
건축된 몸만이 능히 마귀 대항하리라

4 몸 안에서 주 의지해 하늘 한계에 앉아
악한 영적 세력들에 맞서 계속 싸우라

5 모든 형제 주 위하여 주의 몸의 지체 돼
영 안에서 기도하며 보혈 인해 승리해

6 머리이신 주의 능력 우릴 이기게 하니
형제들과 군대 되어 군사로서 싸우리

7 몸 안에서 공격할 때 악한 자를 정복해
주 뜻 따라 묶고 매면 원수 우리 밥 되리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8:7-13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40-41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Being Brought on to Maturity

Scripture: Heb. 6:1-12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26, 30

Supplemental Reading: *CWWN*, vol. 44, "Conferences, Messages, and Fellowship (4)," ch. 116; *CWWN*, vol. 20, *Questions on the Gospel*, ch. 46; *The Way for a Christian to Mature in Life*, chs. 1, 12